

현불뉴스

월주님 종정 예방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구암 20일 통도사로 월하 종정님을 예방 98년도 종무보고를 가졌다.

신홍사 신도회 창립

조계종 제3교구(신홍사) 신도회는 지난 19일 강원도 속초 인양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도원씨(낙산비치호텔 회장)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전북아원 5일 개원

대한불교법사회 대전포교당 북아원(원장 박형권법사)이 오는 5일 오후 2시 개원한다.

청소년과 대학생분자들을 위한 법회공간과 2만여권의 불서를 구비한 불교전문도서관을 갖춘 북아원은 대전지역 불교문화공간으로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자권 동지 포덕금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은 구암 27일 본회 강 의실에서 제6회 동지 포덕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동법 기술처리 규약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정화 지선)은 구암 26일 정부여당이 노동관계법 및 안기법안을 단독 기술처리한데 따른 규약성명을 발표하고, 헌정부와 여당의 불신임 및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련 평불협 등 교계 11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단체협의회(회장 법타스님)도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안기법안·노동관계법 남치기행과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60년대 성철스님 창당스님 서용스님 석주스님이 한철을 지내며 법당을 나누고 매일 108배 참회정진했던 참회도량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 이 참회도량에서 13년을 하루같이 매일 3천배 참회정진 해온 '참회보살'이 있다.

“참회하다보면 하심생겨요”

13년동안 매일 3천배정진 조광명성 보살

하고 생활에 파묻혀 지날뻔한 조보살 신변에 주재할 수 없는 괴로움이 생겨 한동안 부처님을 의면했던 마음을 참회하기 위해 절을 찾았다.

“처음엔 업장소멸위해 시작 지금은 일체중생위해 기도”

어린시절부터 절에 가기를 즐겼던 조보살은 하루가 멀다하고 주위사람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했다.

“처음엔 오로지 참회정진을 통해 내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여 부처님 기쁨을 입고 싶은 마음이었습다.”

83년부터 5년간 2천배 정진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내자신과 내가족만을 위한 업장소멸 참회는 부질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88년부터는 생전에 성철

스님이 불자들에게 권했던 일체중생을 위한 3천배 정진을 하며 남을 위한 참회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번뇌없는 참회를 하고 있다.

조보살은 가족들의 출근및 등교를 시키고 아침 10시만 도선사에 올라와 정진하고 참회도량을 정리정돈하는 등 스스로 부어낸 소임을 잊지않는다.

참회정진에 온힘을 쏟다보니 처음에는 난관도 컸다. 절하고 집밖에 모르는 보살님의 행동에 처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의사와 주변일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하는등 수많은 장애를 만나 고민속에서 오직 한마음 굳게먹으며 극복했다.

“참회는 어리숙한 알음알이나 나약한 심심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참회를 생활화한다면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조보살의 참회정진은 자연스레 가족들에게 스며들어 가정 화목을 절로 이루게 됐다. “마음을 닦아 나를 바로보는 참회를 하다보니 하심생기는 마음이

로 다른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조보살은 절을 하게하는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릴없이 절만 하는 소극적 참회에만 머물러 안된다는 당부를 거듭 되풀이하며 조보살은 다시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삼각산 도선사 야외참회도량은 수많은 불자들이 마에부처님앞에 모여 참회정진에 열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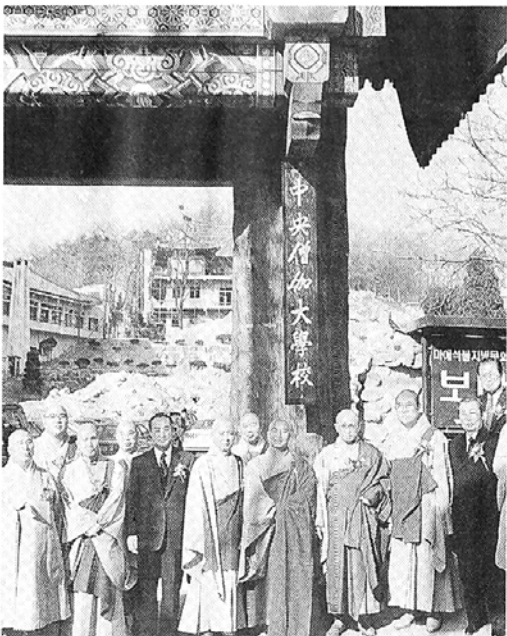
(도선사=김원우 기자)



“천원이면 한달식량” 법륜스님 북되기 호소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근의 언론보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연변을 다녀온 우리민족서용회가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지난 21일 동산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추수한 곡식이 있어 내년 봄까지의 관할지 양을 가 하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북한의 현재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구암 17일부터 20일까지 조선족동포 사기피해사태 조사단의 일원으로 중국 연변을 다녀온 법륜스님은 현지 조선족 동포를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자세히 전해들었다며 사색별로 북한 식량사정을 설명했다. 법륜스님은 “굶주림의 고통에서 수백만명의 동포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변화와 북한동포돕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중앙승가대 현판식.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구암 27일 정진대 대강당에서 정규대 승려 축하법회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삼국유사 저술지 인각사 수물 어불성설” 군위 고로댐건설 철회 촉구

반대위 결의문 발표

경북 군위군 고로댐건설철회철회를 촉구하는 결기대회가 지난 21일 인각사 경내에서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대원스님(인각사 주지) 고로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본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일연선사의 사상철학을 재조명해 무분별한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인각사를 수물사키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지선만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원스님은 '고로댐 건설철회 촉구' 관련 여러

부산불교신도회 헌옷보내기운동 전개

연변·인도 4성지 주민에게...군법당 불서보급도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가 구암 12일 출범한 가운데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부산여성불자회 주관으로 올해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불교부산방송과 공동으로 중국 연변의 빈민동포와 인도 4성지 인민마을의 주민들에게 헌옷보내기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통도사 부산포교원, 한마음선원,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등 부산 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신도회 신하 국제분과, 봉사분과, 여성분과 회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준비위원회를 상설화해 내년에는 몽골동포에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산불교신도회는 중국 불교협회, 인도불교협회와 교류를 앞두고 이들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신회 해체위기

전국신도회 박원일회장이 회장직 사퇴사를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 12월 중순 순안식사

무총장과 윤창광감사에게 "자연인으로 남아 불교발전을 돕고 싶다"며 사퇴사를 전달했다.

전국신도회는 이에따라 2월경 대의원총회를 열어 사표수리 여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전진회장의 구속과 조계종단으로부터의 대표성 부정 등으로 지역조직의 약화를 가져오는데 이어 회장유고가 반복돼 사실상 해체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부산불교신도회는 헌옷보내기사업과 병행해 군법당에 불서보내기운동도 펼치고 있다.

헌신회 해체위기. 박원일회장이 회장직 사퇴사를 밝혔다.

전국신도회 박원일회장이 회장직 사퇴사를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 12월 중순 순안식사

‘화천리’ 압도적 지지

울산시민들의 방패로 무산된 후 재개된 '경부고속철도' 새로운 경주경유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천을 화천리노선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구암 23일 경주시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7백여명의 관계 학계 문화계 및 경주 울산 포항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 9명중 6명은 건천을 화천리노선을 주장했다. 강태효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동해남부선과의 교통을 연계하여 경북도정유를 위해

불교방송(사장 조해형)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구암 25일 심야음악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연출 조은정)'에서 밤 12시부터 1시까지 성탄특집을 방송해 화제.

불교방송 성탄특집 종교화합 모범보여

장)이 진행한 '살며 생각하며'에서는 개령송을 내보내고 평화방송 '신부님 우리신부님'을 진행하는 최성우신부를 연결해 얘기를 듣는등 성탄특집을 꾸몄다.

대전사암련 웨블 총결기

약불사에 또...기독교 공식사과 요구

이교도들의 웨블만행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구암 20일 오전 7시 대전 약불사(주지 석철)에 이교도가 무단침입, 불상 5점과 탕화 7점 등을 비롯 각종 불구류 등을 파괴한 후 방화를 시도한 웨블사건이 발생했다.

마음 인생의 목표

인생의 최대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워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으로 되돌아오느냐, 아니면 아래차원으로 떨어지는지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의 힘에 달려있다. 참나를 깨닫으면 영원히 밝은세상을 보게 된다. (한아유선언)

협찬 한마음선원 법체제회

Large advertisement for '전통 황토 쑥작목기' (Traditional Yellow Clay Mugwort Machine). The ad inclu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chine's benefits for health and relaxation, a list of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regional distributors across South Korea. It features images of the machine and people using it.